

# 하루 수수료 수익 수십억원대...산정체계는 '함구'

[가상화폐 거래소만 웃는다]

### 증권사 수수료 10배 수준...수수료율 산정체계 공개 이유 없어 “과세하면 거래비용 높여 거래량 조정·수수료율 인하 효과” 분석

가상화폐 붐이 광풍이 거지지 않는 가운데 이에 편승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만 높은 수수료수익으로 배를 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익률 탓에 수많은 영세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난립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일 유진투자증권 정효운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빗썸과 업비트의 일평균 수수료수익은 각각 25억9000만원, 35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5억9000만원은 빗썸의 거래대금이 지난 1일 기준으로 2조5000억원 규모로 집계되는데 여기에 평균 수수료율을 곱해 낸 수치다. 업비트는 일 거래대금이 약 7조원 규모로 잡힌다. 여기에 원화마켓 수수료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산출한 값이 35억5000만원이다.

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양사의

일평균 수수료수익을 단순 연환산 시에는 각각 9461억원, 1조2900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웬만한 대형 증권사에 견줘도 모자랄 게 없는 숫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지난해 수수료수익 추정치는 8352억원 규모다. NH투자증권은 6828억원이다. 물론 추정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익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통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산정에는 다양한 일가가 반영된다. 가상화폐 채굴자에게 지급하는 돈과 인건비를 포함한 여러가지 거래소 운영 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체계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깜깜이 비판도 제기되지만 거래소가 이를 공개해야할 의무는 현재로서는

없다.

현재 빗썸의 거래수수료는 0.15% 대다. 할인쿠폰 등을 적용하면 0.04~0.075% 정도까지 내려간다. 업비트의 경우 원화거래시 0.139%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통한 거래시 0.25%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증권사 거래 수수료의 무려 10배 수준이다.

이같은 수수료율에 금융당국이 나서서 개입할 여지는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도 안 되는 시장이라 당국이 나서서 수수료 책정방식을 공개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준비중인 가상화폐 과세가 이뤄지면 거래비용을 올려 붐을 잡는 효과 외에 거래소들의 수수료율도 조정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거



래세가 도입돼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오르면 거래소로서는 높은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거래비용 상승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해 나갈 거란 이야기다. 업계 한 전문가는 “높아진 거래비용으로 수수료율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거래소 선택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면 투자자 유치를 위한 업체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올해도 테마株 활활...거래소 “집중 모니터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가상통화 등) 테마주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 발표에도 최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6일 처음으로 2500만원 고지를 밟는 등 투자 광풍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가상화폐 테마주의 추가 움직임과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테마주로 꼽히는 39종목은 작년 12월 27일 주가에 비해 지난 5일 현재 평균 16.26% 상승했다. 또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3종목에 불과했다.

이중 에이티엔인베스트 주가는 지난 5일 4540원으로 전일 27일에 비해 5거래일 동안 71.97% 뛰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에이티엔인베스트는 카카오의 자회사이자 카카오택시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6.75% 보유했다. 두나무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최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급부상한 ‘업비트’를 서비스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기술투자(59.85%), 아이지시스템(58.21%), 대성창투(51.37%), 버추얼텍(50.89%) 등의 가상화폐 테마주는 50%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 또 손오공(48.42%), 씨티엘(32.72%), 이트론(28.71%), 라이브플렉스

테마 21종목은 지난 5거래일간 평균 11.37% 올랐다. 손오공(48.42%), 씨티엘(32.72%), 이트론(28.71%), 라이브플렉스(25.64%), 알서포트(16.45%) 등이 큰 폭의 강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팟넷(14.76%), 모다(9.76%), SCI평가정보(6.94%), 넥스지(1.87%) 등 ‘가상화폐 거래소

39종목 지난 5거래일간 평균 상승률 16.26% 집계  
거래소 “사업보고서 통해 가상화폐 투자 수익 점검”

(25.64%), 포스링크(24.86%) 등은 2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테마 종류별로 보면 ‘가상화폐 지분 투자’ 관련주로 분류되는 14종목의 지난 5거래일간 추가 상승률 평균은 26.87%로 가장 우수했다. 특히 에이티엔인베스트(71.97%), 우리기술투자(59.85%), 아이지시스템(58.21%), 대성창투(51.37%), 버추얼텍(50.89%) 등이 두드러졌다.

‘가상화폐 관련 채굴 및 보안’

설립’ 테마 4종목은 평균적으로 지난 5일 5거래일 동안 8.33%의 수익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거래소는 가상화폐 테마주를 주시하고 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테마주 관련해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상화폐 관련주의 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이용해 대외 발표 등을 통해 주가 행위가 착음이 있는지 감시,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시장 매매 중단, 금융감독원 통보,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테마주가 뜨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 실제 가상화폐 사업 참여를 통해 알마를 벌였는지 향후 나올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점검해 발표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무늬만 가상화폐 테마주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거래소, 막대한 수수료수익 불구 서버안정 뒷전...투자자만 ‘불안’

막대한 수수료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서버 불안정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 수입원은 수수료수익이다. 유진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일평균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의 일평균 수수료수익은 각각 25억9000만원, 35억5000만원이다.

이처럼 때론 불편해도 여전한 서버 관련 문제에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만 분통이 터진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한목소리로 저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서버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한다.

지난 4일 업비트는 거래량 폭증으로 인해 수초간 시세반영이 지연되는 사고를 겪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세조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의혹마저 일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이용자 접속 증가에 따른 서버 지연 오류”라

고 밝혔다.

5일에는 새로 오픈한 거래소 ‘코미드’의 서버가 첫날부터 거래량 폭증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 일도 나왔다.

물론 거래소들이 서버 안정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다. 지난달 1일 빗썸은 서버중단 사태로 소송위기에 휘말리는 등 일련의 사태를 겪은 뒤 서버를 5배까지 증설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달 21일 오전 또다시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접속량 과부하로 접속 지연 문제를 겪었다.

해킹 등 보안문제에 대한 지적도 여전하다. 현행법상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국이 과징금 부과 등으로 조치한다. 다만 이때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도 현실에 맞지 않는 수준이란 비판이 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